

“광주 대표음식 뽑아주세요”

한정식 · 상추튀김 · 떡갈비 · 주먹밥 등 추천

G-FOOD 오디션 통해 대표음식 최종 선정

맛의 고장 광주를 대표하는 음식은 무엇일까. 광주시가 대표음식 선정에 착수한 가운데 시민들은 한정식과 상추튀김, 떡갈비, 육전, 오리탕 등의 순으로 추천했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만의 특색과 맛깔스러운 음식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1월7일부터 40일 간 ‘광주음식 공모전’을 실시했다. 전국 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공모전에는 광주시민 1460명, 타지역민

2026명 등 총 3486명이 참여했다. 광주음식 추천 지정공모에는 전체 응답자의 22.2%가 ‘한정식’을 추천했으며 ‘상추튀김(16.4%)’, ‘떡갈비(14.4%)’, ‘육전(8.5%)’, ‘오리탕(6.5%)’ 등 순으로 나타났다.

스토리 분야에는 378편이 접수한 가운데 ‘주먹밥’, ‘상추튀김’, ‘오리탕’, ‘떡갈비’, ‘팔죽’ 등을 주제로 한 63편이 선정됐다.

광주시는 ‘광주대표음식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공모전 추천 음식

사유별 키워드 분석과 스토리 우수작 음식 등을 반영해 광주대표음식 선정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광주대표음식 후보음식을 정한 뒤 4월에 시민이 참여하는 G-FOOD 오디션을 거쳐 광주대표음식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광주대표음식은 다양한 레시피 개발과 맛집 지정, 식품진흥기금 융자 등을 통해 광주만의 브랜드로 집중 육성한다. 또 광주시 홈페이지나 모바일 등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한다.

우수작으로 선정된 스토리에 대해서는 스토리북, 웹툰, 만화 등으로 제작해 광주음식을 상품화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서은홍 기자

광주전남중기청,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사업 지원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과정에서 자금 및 개발 인프라 부족현상을 지주 겪게 되고, 풀기 힘든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적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전문가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직면하기도 한다.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재홍)은 우수한 연구개발 인프라를 보유한 대학·연구기관과 중소기업간 공동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지원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되는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은 ‘산학연 Collabo 기술개발사업’과 ‘산학연협력 신사업 기술개발 비우려사업’으로 지원규모는 365억원이다.

산학연 Collabo 기술개발사업은 중소기업과 대학·연구기관의 협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화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예비연구단계와 사업화 기술개발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급년부담은 산학연 사업의 사업화 성공가능성을 높이고 성과 중심의 협력 기술개발 체계를 구축하고자 예비연구단계가 도입된 것이 작년 대비 달라진 점이다.

산학연협력 신사업 기술개발 비우려사업은 대학·연구기관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이 기존 주력분야 외에 새로운 업종 진출을 위한 기술개발을 비우려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학연 Collabo 기술개발은 올해에는 예비연구과제에 과제당 8개월, 5천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예비연구단계를 통해 사업화 타당성이 검증된 아이템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사업화 기술개발에 2년간 최대 4억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거나 설립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신청기업과 공동개발기관(대학, 연구기관) 공동책임자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이력이 없어야 한다.

산학연협력 신사업 기술개발 비우려는 기업당 최대 1년, 2억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력 10년 이상·매출액 50억원 이상·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 등 세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산학연협력 공동개발기관으로 등록된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비우려 서비스 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산학연 Collabo 사업은 3월 29일, 신사업 기술개발 비우려 3월 13일까지 접수하며 사업 참여를 원할 경우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ch.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서은홍 기자

동구, 고혈압·비만에방 운동교실 운영

광주 동구는 5일부터 심뇌혈관질환 대표위험요인인 고혈압과 비만에 방 관리를 위한 ‘고혈압·비만에방 운동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구에 따르면 주민들이 고혈압과 비만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운동전문 강사 지도하에 고혈압은 32차시(6월26일까지), 비만은 75차시(12월19일까지)에 걸쳐 체계적인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들러 영양사에 의한 식사관리 교육 등 다양한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서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광주 서구가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 환경조성을 위해 2019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화된 공용시설물 개선 등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입주민의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을 포함한, 관내 소재 공동주택 369개 단지이며, 단지별 최대 3,500만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접수는 오는 3월 말까지 진행하며 신청단계에 대한 실태조사 및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중 대상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남구, 사회적 약자 여성 친화도시 조성 박차

광주 남구는 여성 친화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관내 주민들로 구성된 ‘여성친화 서포터즈’를 본격 운영한다.

5일 남구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구청 6층 중회의실에서 ‘남구 여성친화 서포터즈 위촉식’이 열렸다.

이날 위촉식에는 김병내 구청장을 비롯해 최근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한 40명의 서포터즈 회원들이 참가했다.

남구 여성친화 서포터즈는 이번 위촉식을 시작으로 올 한해 일상 생활에서 겪는 불편 사항과 불합리한 사항을 발굴·모니터링해 정책 개선을 요청하고 양성평등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 여성 친화마을 현장 견학 및 여성 친화도시 조성 사업 과제 발굴 등을 통해 여성의 지위 향상 등을 꾀하는 활동도 펼치게 된다.

문인 북구청장, 북구 문화의 집 방문

문인 북구청장이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문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북구 문화의 집을 방문했다.

광주 북구는 “문인 북구청장이 5일 북구 문화의 집 등 관계자와 프로그램 이용자를 만나 북구의 문화 프로그램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5일 밝혔다.

‘북구 문화의 집’은 1997년 개관한 이래 인근 주민들이 생활문화 프로그램에 손쉽게 접근하고 누릴 수 있는 문화 활동 공간으로 ‘생활문화 편의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북구는 지난 2000년 북구 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조례를 제정해 위탁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2001년부터 현재까지 위탁 운영하며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층의 이용자를 위해 주부 인문학당, 초딩 수공예, 북문시장 한류장터, 밥 경연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광산구, 역세권 발전방향 토론회 개최

8일 광주 광산구가 구청에서 ‘광주송정역세권 발전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지역의 굵직한 현안 중 하나인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활용과 광주송정역세권 발전 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

이인성 서울시립대 교수의 진행으로 열리는 토론회는 역세권 발전방향 수립 경위 설명, 발제, 전문가 토론, 질의응답 등이 내용이다.

지오시티(주) 류영국 대표이사의 ‘금호타이어 부지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방안’을 시작으로 광운대 박태원 교수의 ‘신진 역세권 토지활용 사례’, 아주대 이명범 교수의 ‘대교모사실의 이진 적지 활용사례와 사업성 확보방안’ 발제가 이어진다.

임형택 기자

‘LCC 진출 실패’ 에어필립 존폐기로...투자유치 ‘물거품’

“새로운 투자자 확보 못하면 청산 할 수도 있다”



호남을 기반으로 한 항공사(주) 에어필립이 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저비용항공사(LCC·Low Cost Carrier) 선정에서 탈락했다.

에어필립은 앞서 지난달 28일 LCC면허 취득을 조건부로 신규 투자처 3개사로부터 750억원을 유치하기로 투자협약서(LCC)와 투자자의향서(LOI)를 각각 체결했다.

하지만 LCC면허 취득 실패로 투자유치가 물거품이 되면서 존폐 기로에 직면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신규 저비용 항공사(LCC)로 플라이강원·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 등 3개사를 선정했다.

국토교통부가 LCC 신청 항공사 4곳 중 유일하게 에어필립만 탈락

시켰다.

이 같은 결과는 전일 업일식 대표이사가 불법 주석거래 혐의로 구속된 이후 시작된 오너리스크를 극복하지 못한 결과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에어필립 측은 LCC 면허 취득 실패와 함께 회사를 회생 시킬 유일한 희망이었던 대규모 투자유치까지 물거품이 되자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에어필립 관계자는 “당장 신규 투자처를 확보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회사 문을 닫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때 최고 288명까지 달했던 임직원 수도 경영난이 가중 되자 기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하나 둘 회사를 떠나면서 현재 240명이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최악의 경우 핵심 인력 30명만 남아 비상 경영체제로 전환 될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환 기자

전남도, 6월까지 긴급복지지원 확대

전남도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을 올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전남도는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비롯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와 자살 고위험군 등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에서 추천이 있는 경우 위기 사유로 인정해 지원해주

고 있다.

또 실직이나 휴·폐업에 따른 위기가구는 금융재산 기준 등 선정 기준이 초과하더라도 위기상황을 고려해 우선 지원을 하고 사후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적정성 및 추가 지원 여부를 심사해 결정하게 된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346만 원 이하), 일반재산 중소도시 1억1800만 원(농어촌 1억1000만 원) 이하이며,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인 가구다. 전남도 일반재산(중소도시 기준)8500만 원보다 완화됐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생계지원(4인 가구 기준 119만 4000 원), 주거지원(4인가구 기준 중소도시 42만2000원, 농어촌 24만 3000 원), 의료 지원(300만 원 이내), 교육 지원 등의 혜택이 있다.

김정환 기자

고객 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을석 세무회계사무소

- 법인 설립
- 양도상속증여
- 기업 진단
- 기장 대리
- 건설면허신청
- 외부감사

광주시 서구 매월동 948 산업융재유통센터 30동 217호(풍암지구)
TEL : 062-603-1060 FAX : 062-603-1062
H·P : 011-641-6152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 ▶석면 해체공사
▶지정·건설 폐기물 처리 ▶석면조사

측량>>토목설계>>도시계획
토목공사>>창업상담>>관계민원업무

광주 서구 쌍촌동 994-1 영신강빌딩 별관 203호

(주)고려환경개발 Tel : 062)361-0404
(주)고려기술공사 Tel : 062)362-8251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 ▶노동법기업컨설팅 ▶산재업무대리
- ▶급여체계 정비사 ▶징계(해고)자문
- ▶4대보험 무료대행 ▶노동부 지원금

노동부 옴부즈만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알신협 5층
Tel : 062)512-0336 H·P : 010-3624-0338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세상의 뉴스를 아낌없이...

湖南新聞이 지역공감·미래창조·정문직필의 나무를 키우겠습니다.

- 구독신청 · 광고문의 : 062-224-5800
- 기사제보 ·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 a x : 062-222-5548
홈페이지 : www.ihonam.com